美에 티베트 불교 전한 1세대 스승 입적

5월 24일, 콩라 라뙤 린포체 입적
5세때 9대린포체 인정…30년 교육
생전 뉴욕 첫 티베트 센터 설립도
최근 달라이라마 접견…곡기 끊어

박영빈 객원기자



생전 달라이라마를 만난 콩라 라뙤 린포체(우측 두번째)와, 제자인 니콜라스 브릴랜드 스님(왼쪽 끝). 사진출처=티베트 센터 공식 페이스북

미국에 티베트 불교를 전한 1세대 스승이자, 뉴욕에 최초 티베트 불교 사원을 건립한 콩라 라뙤 린포체(Khyongla Rato Rinpoche)가 인도에서 원적에 들었다. 린포체의 부고에 미국 불교계가 슬픔에 잠겼다. 5월 27일, 미국의 불교 전문지인 '라이온스 로어'는 린포체의 부고와 함께 생전의 업적을 보도했다.

지난 5월 24일,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티베트 불교 사원이자, 생전 린포체가 주석하던 '티베트 센터'는 공식 웹사이트에 부고를 발표했다. 센터 측은 "린포체께서는 편안하게 원적에 드셨다. 가까운 제자들이 임종을 지켰으며, 출가본사인 라뙤사원의 스님들이 법구 옆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센터 측은 "라뙤사원 방장인 브릴랜드 스님이 린포체의 중음(中陰)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전했다"며 린포체와 인연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콩라 린포체는 인도 다람살라 처소에서 원적에 들었으며, 입적 며칠 전 마지막으로 달라이라마를 접견하고 차츰 곡기를 끊은 것으로 전했다.

콩라 라뙤 린포체는 1923년 동부 티베트의 닥얍지역에서 태어났다. 5세에 13대 달라이라마로부터 9대 콩라 린포체의 환생으로 인정받아, 이듬해 주석사찰인 라사의 라뙤사원으로 이주하여 30여 년간 전통강원 교육을 받았다.

콩라 린포체는 이 기간 동안 티베트 대장경을 모두 열람하고 연찬했으며, 달라이라마의 스승이었던 링 린포체의 수제자이자 뛰어난 논사로 이름 높았다. 이로 인해 현 달라이라마가 티베트 불교의 최고 법계인 '게쎄 하람빠'를 취득할 당시 시험관으로 발탁됐다. 달라이라마에게 즉석에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1959년, 중국의 티베트 침공을 피해 인도로 망명한 후, 우연한 기회에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서구에 불교를 전하는 1세대 스승으로 활동했다. 린포체는 통역 없이 직접 영어로 미국인들에게 설법하고 다양한 저술과 번역으로 전법활동에 열중했다. 1975년 뉴욕에 불교명상과 교학연구 센터로 '티베트 센터(The Tibet Center)'를 건립했으며 30년 넘게 센터의 원장이자 수석교사로 소임을 다했다.

티베트 센터는 미국에서 티베트 불교를 전파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1999년 20만 명의 대중이 운집한 달라이라마의 센트럴파크 공개강연과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달라이라마의 방미 일정은 모두 티베트 센터에서 주최했다. 이후 티베트 불교의 저명한 스승들과 이외의 다른 불교지도자들의 초대와 강연을 통해 콩라 린포체와 티베트 센터는 미국에 불교를 전하는 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콩라 린포체에게 수학한 대표적인 유명인사로는 영화배우인 리처드 기어가 있으며, 또 다른 미국인 출가제자인 니콜라스 브릴랜드는 2012년, 서양인 출가자로는 최초로 총림 사찰인 라뙤사원의 방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달라이라마는 "린포체는 미국을 비롯하여 서구의 많은 나라들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같은 은사를 두는 한 제자로서도 크게 애도를 전한다"고 발표하며 빠른 환생을 기원하는 기도문을 발표했다.

몽골 불교대표단, 교황 공식 접견

몽골–바티칸 수교 30주년 맞아
5월 28일, 종교 교류 대화 촉구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남을 가지는 몽골 불교대표단. 사진출처=바티칸 뉴스

몽골과 바티칸 시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아 첫 공식회담을 가졌다. 5월 28일,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 뉴스'는 몽골의 불교대표단이 바티칸을 공식방문, 프란치스코 교황과 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담에서 대표단과 교황은 "인류가 삶의 모든 면에서 비폭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종교 간 대화가 필요하다"며 종교 간의 교류와 대화를 촉구했다.

지난 28일 오전, 바티칸 교황청 종교간의 대화 평의회((Pontifical Council for Interreligious Dialogue) 회장에서 몽골 불교대표단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몽골과 바티칸 간의 첫 공식 회담으로 양국간의 공식수교 30년 만의 일이다. 이번 자리를 주선한 지오르지오 마렝고 울란바토르 지목구 주교는 "그동안 몽골불교의 저명인사들이 바티칸을 방문하고 교황과 만남을 가진 적은 있었으나, 국가대 국가로 공식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마렝고 주교는 "가톨릭 교회는 종교 간 대화의 중요한 상대로 몽골불교를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몽골 불교대표단은 이틀간 바티칸을 방문했으며 성 베드로 대성당과 바티칸 박물관 등을 견학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담에서 몽골의 전통적인 불교교단이 가톨릭 교회와의 상호 이해를 통해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과 도움에 감사를 표했다. 교황은 또한 "평화는 오늘날 인류의 열망"이라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와 비폭력 문화를 촉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평화와 비폭력을 위한 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황과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종교간 꾸준한 대화와 교류가 필요한 것을 확인하고 평화와 화합을 위한 만남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대표단은 두 종교 간의 평화로운 공존과 대화를 촉구하면서 "부처님은 승리와 패배를 넘어서서, 타인을 정복하고 해치려는 욕망을 자제하고 중도를 지킬 것을 가르치셨다"며 "예수와 부처 두 스승은 모두 평화를 가르친 분들"이라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 혼간지 불교 사원 100주년…"일본 이민자에 희망"

5월 26일, 경내서 100주년 기념
사원 역사 담은 영상 상영 눈길



혼간지 사원 창건 100주년 기념 특별 법요식. 사진출처=더 라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퍼낸도에 위치한 일본불교사찰 '혼간지 사원(SFV HBT)'이 창건100주년을 맞이해 화제다. 지난 5월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일본 일간지 '더 라푸'는 혼간지 사원의 100주년 기념식 소식을 전했다.

일본불교 최대 종단인 정토진종이 미국에 건립한 혼간지 사원은 지난 4월 16일 창건 100주년을 맞았다. 해당 행사는 16년간 혼간지 사원의 주지를 역임한 패트리샤 우스키 스님의 은퇴 기념식과 함께 지난해 10월 봉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돼 해를 넘겨 봉행됐다. 이번 행사를 위해 캘리포니아 남부와 네바다주 전역에서 온 200여 명의 불자와 내빈들이 참석했다.

혼간지 사원은 1920년 미국 샌퍼낸도에 일본인 이민자 1세대가 모여 스님께 설법을 듣고 예불을 올리던 소규모 모임에서 시작됐다.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발발로 사찰이 강제 퇴거 당하고 스님과 신자들이 수용소로 보내지면서 한때 쇠락하기도 했으나, 종전 후 고난의 시기를 보낸 일본인 불자들을 중심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감사와 증장을 발원하며 지금과 같은 규모로 건립했다.

100주년 특별 예불이 있던 날 아침, 혼간지 사원은 100주년 기념 보수 공사를 완료하면서 더욱 빛나는 모습으로 불자들을 맞이했다. 이번 보수공사는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3년간 불자들이 모은 보시금을 기금으로 진행됐다.

기념법요식에서 현 주지인 마빈 하라다 스님은 "나는 지난 100년간 이 사회의 변화와 변혁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여전히 탐욕과 분노, 무지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고통에 직면해 있음을 알았다"면서 "한 사람의 불자로서 깊은 참회 마음을 일으켰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또 행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이자 갈등과 고통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대중에게 설했다

혼간지 사원의 100주년 기념식에서는 옛 혼간지의 모습을 기억하는 원로 불자들의 회고와 발표가 이어졌다. 니일 히가시다는 "어린 시절의 혼간지는 큰 강당을 커튼으로 나누어 공간을 구별한 공간이었다. 모든 예불과 설법은 탁상에 부처님을 모신 공간에서 봉행됐다. 또 여성 불자들이 작은 부엌에 모여 예불에 참석한 불자를 위해 일본식 식사를 준비한 것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기념식의 하이라이트는 혼간지 사원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상영이었다. 2년에 걸쳐 촬영한 25분짜리 영상에는 희귀한 역사적 사진과 세상을 떠난 사찰 원로들과의 인터뷰가 담겼다. 제이슨 팬톤과 장 폴 드 구즈만이 제작한 이 영상은 초창기 사원 건립과 불교포교의 개척자들의 정신에 대한 열렬한 감사를 표하고 현재 불자들의 끊임없는 정진, 불교의 길을 함께 걷는 유망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불자 원력이 캐나다에 진신 사리탑 세워

스리랑카식 사리탑 보강 완료
지역에 기도 명상 장소 제공도



보강공사가 끝난 사리탑 앞에 선 사마디 스님. 사진출처=더 프리 프레스

스리랑카 불자들과 캐나다 불자들의 원력과 합심으로 캐나다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사리탑이 준공됐다. 5월 28일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일간지 '더 프리 프레스'는 매니토바에 새로운 불교 상징물이 세워졌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완공된 진신사리 탑은 높이 7.5m, 지름 5m로 스리랑카 전통 불탑 양식으로 조성됐다. 탑신부는 백색 콘크리트로 덮였고 찰주와 장엄구는 놋쇠로 제작됐다. 2017년 매니토바 스리랑카 불교사원이 건립되면서 함께 조성된 사리탑은 캐나다의 혹독한 겨울 날씨에 파손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여름부터 보강공사에 들어갔다.

탑 내부에는 스리랑카에서 이운해온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보리수, 불경 등의 복장물들이 모셔져 있었으나, 보강공사를 위해 탑 밖으로 이운됐고 공사기간동안 사찰의 내부에 보관하며 대중에 친견기회를 제공했다. 복장물들은 최근 사리공이 완성되면서 탑 안에 재봉안됐다. 탑의 완공을 알리는 법요는 지역 불자들과 주민들에게 공개됐다.

매니토바 사원의 관계자는 "진신사리탑은 매 주말마다 스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운력을 통해 완공할 수 있었다. 불자들은 일생에 한 번뿐인 진신사리 탑 보강공사 운력에 참여해 매우 뜻깊어 했다"고 밝혔다. 주지 사마디 스님은 "이 진신사리 탑으로 인해 방 3칸짜리의 개인주택이 매니토바 불교사원이라는 종교적인 시설로 변모할 수 있게 됐다. 스리랑카 이주민 불자들과 현지 캐나다 불자들은 물론,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수행자들에게 사리탑은 기도와 명상의 장소를 제공한다"며 사리탑이 현지에 전하는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바쁜 일상, 속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삶의 연속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뿐이다.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땅끝 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사주명리/점술 개인지도 · 신기/신가물/제자 환영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